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소식

일본의 생활 매너 (日本の生活マナー)



Q.동네 사람이나 이웃으로부터 생활 매너에 대해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폐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왜 주의를 받았을까요?

A.모국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본에서는 트러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 두면 이 후의 트러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크기의 소리인데 왜 항의가 들어오나요?

Q.「밤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큰 소리가 나요」, 「베란다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려요」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주의를 받았을까요?

A.일본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여깁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벽이 얇은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더 소리가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심야나 새벽에 큰 소리가 들리면 이웃 주민들은 자신의 수면이 방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타인이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는 서로의 생활을 위해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중요합니다.



모국에서는 괜찮는데 왜 자전거 규칙으로 주의받는 건가요?

Q.「자전거는 나란히 달리지 마세요」, 「자전거는 길에 세우지 마세요」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괜찮는데 뭐가 안되는 건가요?

A.일본은 좁은 길이 많아서 나란히 달리면 보행자나 앞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규칙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게 사고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다니기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전거를 길에 세우면 노약자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해진 자전거 주차장 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세우면 안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전거가 수거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는 왜 제가 편한 시간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Q.쓰레기는 왜 수거 전날 밤이 아닌 수거 당일 아침에 내놓아야 하나요?

A.쓰레기를 빨리 밖에 내놓으면 까마귀나 고양이 등의 동물이 쓰레기 봉투 내용물을 뒤져서 주변에 쓰레기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질러진 쓰레기를 동네 주민회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전날 밤부터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 냄새가 쓰레기 집적소 근처에 퍼져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서 왜 버리는 방법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Q.쓰레기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동네 주민회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세밀하게 분별해야 할까요?

A.쓰레기 중에는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이용 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을 재이용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분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 단체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분별 규칙도 자치 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7개 언어의 홍보지

한국어 외에 일본어/にほんご, 영어/English, 중국어 (간체자)/简体中文, 중국어 (번체자)/繁體中文, 베트남어/Tiếng Việt, 네팔어/नेपाली 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왜 어디서나 피울 수 없나요?

Q.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여기는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재 위험이 없는데 왜 안될까요?

A.지역에 따라서 길거리 흡연 및 정해진 장소 내에서 걸으면서 하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간접흡연에 의해 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또 걸으면서의 흡연도 아이들의 얼굴 위치에 담뱃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주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형 쓰레기는 왜 일반 쓰레기로써 버릴 수 없나요?

Q.귀국이 정해져서 가구 등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 평소처럼 쓰레기 버리는 곳에 내놓았더니 「그건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주의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A.대형 쓰레기를 버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긴 부분의 길이가 약 30cm 를 넘는 큰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로써 버리게 되며, 사전에 예약을 하고 버려야 합니다. 예약을 안 하고 내놓게 되면 회수되지 않아서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횟수는 약 2 주에 1 회, 정해진 날이 있으므로 대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정해졌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형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 접수 센터」(022-716-5301) 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세요.
<https://www.sendai-sodai.jp/eco/view/sendai/top.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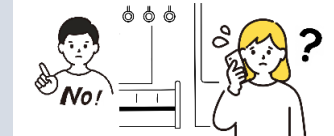
대형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Guide on How to Dispose of Bulky Waste In Sendai City』
(영어) 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WKQGHq5IRI>



모국에서는 괜찮은데 왜 전철이나 버스에서 전화를 하면 주의 받을까요?

Q.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여기서는 전화 통화하지 마세요」라고 주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A.일본에서는 전철, 버스 등의 대중 교통수단에서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승객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어폰으로 음악 등을 듣고 있어도 대음량이라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와서 주변에 들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합니다.



센다이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매너 매뉴얼」을 다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번체자,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쉬운 일본어) 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https://www.city.sendai.jp/shiminsekatsu/kurashi/anzen/anzen/machi/documents/r8kankokugo.pdf>



「센다이 생활 편리수첩」에도 센다이에에서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int.sentia-sendai.jp/foreigner/>



일본의 생활 매너를 지켜서 지역 사람들과 쾌적하게 생활합니다.

외국어 서포트가 필요한 분은 다문화 공생센터 (SenCUL) 에 상담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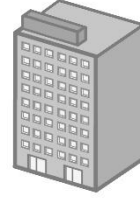
안내 : SenCUL 휴관일과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의 상담처



【SenCUL 휴관일이 2026 년 4 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대응 시간은 9:00 ~ 17:00 입니다.

<https://int.sentia-sendai.jp/k/exchange/index.php>



매주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의 상담처】

▶긴급일 때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삼가주세요.

- 경찰 : 110 (사고 · 사건)
- 구급차 · 소방차 : 119 (급병 · 화재) (24 개 언어로의 다언어 대응)

▶시청 · 구청에서의 수속 등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센다이시 종합 콜센터 「숲의 도시 오시에테 콜」을 이용합니다.

022-398-4894

접수 시간 : 연중무휴 8:00 ~ 20:00

(토, 일, 공휴일, 12 월 29 일 ~ 1 월 3 일은 8:00 ~ 17:00)

대응언어 :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베트남어 · 네팔어

<https://guide.callcenter.city.sendai.jp>



상담원 코너 「일본에 와서 놀란 일본의 생활 매너」

본 코너에서는 매 호의 테마에 맞춰서 상담원의 경험 및 생각을 소개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의외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매너도 그 중의 하나로, 한국과 다른 일본 매너 때문에 일본에 처음 온 분들은 놀랄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가장 깜짝 놀란 일본의 매너는 밥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같이 나눠 먹는 요리가 많아서 남기지 않고 책임지고 다 먹는 것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요리를, 먹고 싶은 양만 먹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처음에 이 일본의 매너를 지키는 것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되어서 가게에서 주문할 때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본에서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핸드폰으로 통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버스나 전철 등을 이용할 때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핸드폰도 매너모드로 해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바깥쪽을 향해 놓고 들어가기,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전달하지 않는 것 등의 일본 매너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생활 매너를 기억해 두면 일본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다른 매너를 이해하고 지키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만끽합니다.

(상담원 Y)

매 호, 각 언어판에는 각각의 상담원이 「상담원 코너」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고 있으니, 꼭 봐주세요.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せんだいたぶんかきょうせい

仙台多文化共生センター(SenCUL)



운영시간 오전 9 시 ~ 오후 5 시

휴관일 일요일, 공휴일, 둘째주 월요일, 연말연시.

둘째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

주소 〒980-0803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초 3-6-1 센다이 파크빌딩 1 층

TEL (022) 265-2471

FAX (022) 265-2472

Email tabunka@sentic-sendai.jp

URL <https://int.sentic-sendai.jp/k/exchange/>



■ 외국어 상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일이나 문제에 대해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포트 전화」(022) 224-1919 로 전화해 주세요.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말레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싱할라어, 힌디어, 벵갈어, 우르두어

외국인을 위한 전문 상담회

변호사 및 행정서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에서 생활하다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이용해 주십시오.

비밀은 엄수합니다. 한 사람 당 30 분입니다.

개최 시간은 매회 오후 1 시~오후 4 시입니다.

상담회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nt.sentic-sendai.jp/k/exchange/consultation.html>



행정서사

변호사

노동국

출입국 재류관리국

세무사

센다이시 창업 지원센터
ASSISTA

